

AI 네이티브 승부수 던졌다… ‘보안 리더십’ 시험대

CEO 와칭

정재현 SKT 대표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네이티브 기업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정재현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AI 인프라부터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AI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AI 풀스택’ 전략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고객 데이터와 기업용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보안은 기술 문제가 아닌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관리해야 할 핵심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개인 고객 대상 AI 서비스 ‘에이닷(A.)’, 자체 LLM ‘AX K’ 시리즈, AI 데이터센터(AIDC)를 축으로 AI 풀스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개인 고객과 기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AI 생태계를 만들어 통신사를 넘어 AI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에이닷을 통해 일정 관리와 통화 요약 등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 시장에서는 제조·국방·바이오 등 산업 현장을 겨냥한 AX K2를 앞세워 AI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AI 인프라 분야에서는 지난해 AIDC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 SK하이퍼를 출범시키고 관련 조직을 통합하며 투자 기반도 강화했다.

AI 사업이 확대될수록 고객 데이터와 기업 정보가 대규모로 처리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앞으로 AI 경쟁력의 핵심이 모델 성능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방과 공공, 기업용 AI 시장은 폐쇄망과 분리망 환경 등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요구하는 만큼 보안 역량이 곧 사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AI 풀스택의 성패 가를 ‘보안 리더십’

정 대표는 AI 사업 확대와 동시에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를 핵심 경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취임 이후 에이닷 전화 기능에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도입했다.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을 감지하면 이용자에게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AI 기술을 새로운 서비스뿐 아니라 보안 영역에도 적극 활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업 AI 분야에서도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AI 보안 협력체인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에 참여해 LLM 취약점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AX K2 역시 산업 현장 적용에 앞서 반복적인 안전성 검증과 사후 학습을 거쳐 신뢰성을 높였다.

정 대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기반 정보보호 체계다. 내부망이라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와 기기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AI 시대 보안 환경에 맞춘 새로운 보호 체계다. 영업전산과 회선관리, 과금 시스템은 물론 고객 데이터와 클라우드, AI 플랫폼 전반에 제로트러스트를 확대 적용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투자도 공격적으로 늘린다. SK텔레콤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7000억원을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하고, 대표이사 직속 통합보안센터와 독립적인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보고 체계를 구축해 최

에이닷·자체 LLM ‘AX K’부터 AIDC 중심 AI 풀스택 체계 구축
개인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 확대
제조·국방·바이오 산업 공략도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 도입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
LLM 취약점 대응 체계 고도화
제로트러스트 정보보호 강조

정보보호 분야에 7000억 투자
최고경영진 보안 거버넌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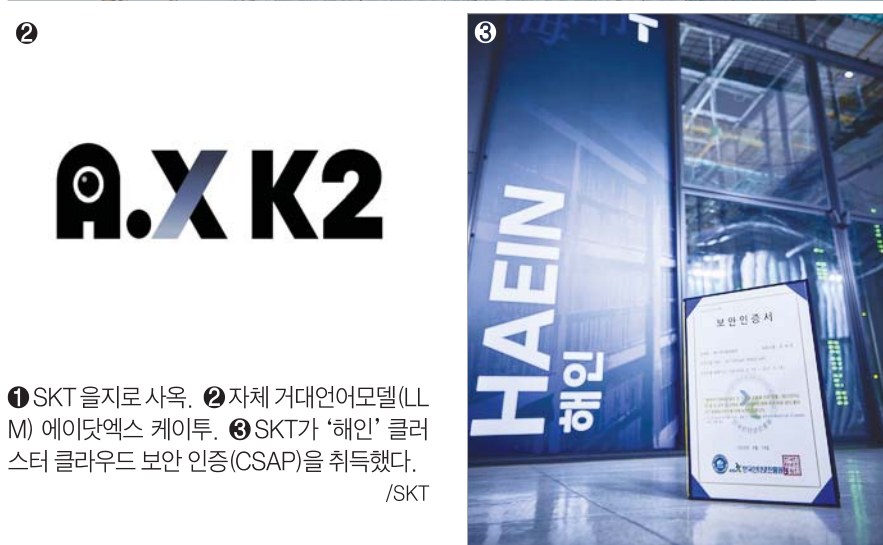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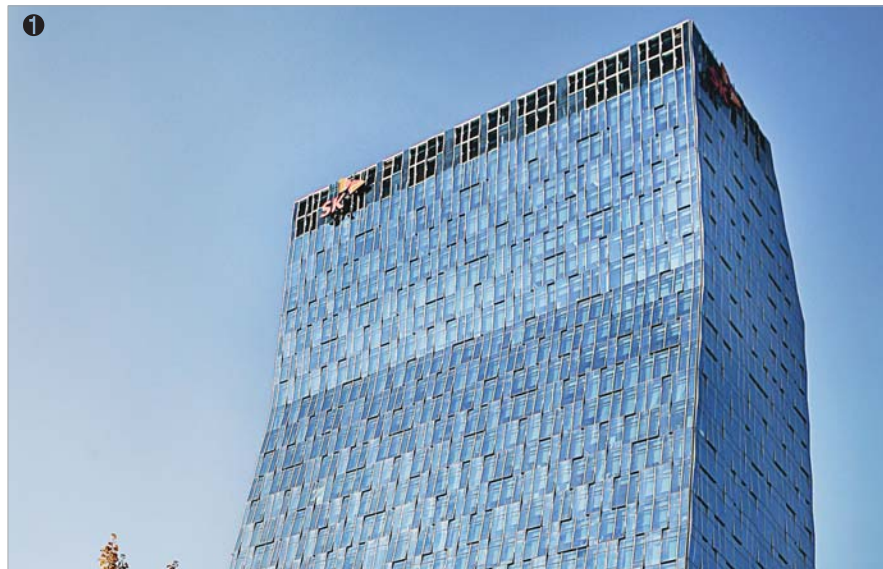
AWS·오픈 AI 등과 협력 확대
SK그룹 반도체 사업 등도 결합
조직구조 정비, CIC 체계 도입



/따음AI



정재현 SKT 대표



① SKT 을지로 사옥. ②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엑스 케이투. ③ SKT가 ‘해인’ 클러스터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을 취득했다. /SKT

고경영진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AI 사업이 확대될수록 보안 사고가 곧 기업 신뢰와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대표는 올해 MWC 2026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AI 역량이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업을 더해 대한민국 고객과 기업의 AI 네이티브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AI 시대 통신사의 경쟁력은 더 이상 네트워크에만 머물지 않는다. AI 모델과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를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하느냐가 기업 신뢰를 결정하는 시대다. AI 네이티브 기업을 선언한 SK텔레콤의 다음 경쟁력은 AI 성능이 아니라 보안이며, 이를 최고경영자의 책임으로 끌어올린 정재현 대표의 리더십이 향후 AI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 AI 전환 가속…신뢰 회복이 관건

SK텔레콤이 통신사업자 역할을 넘어 AI 중심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의 전략은 AI 데이터센터와 거대언어모델, 고객·기업용 AI 서비스 등 ‘AI 풀스택’을 통해 AI 사업의 수익 기반을 넓히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정재현 사장은 취임 직후 SK AI 서밋 무대에서 AI 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이 국내 AI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사업자로 자리 잡고, 한국의 AI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도.

를 위해 자체 역량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글로벌 기술 기업 및 SK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활용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AWS, 오픈AI 등과의 협력 확대가 주목된다. 대규모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국내 고객과 산업 현장에 맞게 적용하려는 시도다. SK그룹의 반도체, 에너지, 제조 등 사업 기반과 결합할 경우 기업용 AI 전환(AX) 사업에서도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은 이런 AI 인프라와 산업 특화 솔루션을 확장할 수 있는 무대로 거론된다.

조직 운영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AI와 통신 사업을 각각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CIC 체계를 도입해, 기존 통신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AI 사업에는 보다 빠른 투자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있다. AI 사업의 속도와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성패는 기술 투자 못지않게 고객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고객 정보보호와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AI 사업 확대 과정에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민감한 경영 과제가 됐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더 많은 고객 데이터와 기업 정보가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고객 신뢰를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결국 SK텔레콤의 AI 전환은 화려한 기술 발표나 협력 확대만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안전한 데이터 관리, 안정적인 통신 품질, 기업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 정재현 사장이 AI 성장 전략과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풀어나느냐가 SK텔레콤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